

‘혼돈의 순간, 행성 의식과 미래 정치의 활로’

유엔 세계평화의날 기념 PBF 2025, 19-20일 양일 간

김유경 기자 ghafjs@khu.ac.kr

【서울】 제44회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Peace BAR Festival (PBF)이 19일과 20일, 우리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다. 올해는 ‘혼돈의 순간, 행성 의식과 미래 정치의 활로’라는 주제로 15일부터 20일까지는 양캠퍼스에서 부대 행사도 이어진다.

PBF는 1981년 유엔 세계평화의 날 제정을 기념해 1982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국제학술회의와 다양한 행사를 결합한 축제다.

이번 PBF 주제에 대해 미래문명원 김원수 원장은 “지구는 전체 우주로 보면 더 작은 존재인데, 우주

를 잊고 마치 우리만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인간 중심주의로 여러 폐해가 발생한다”며 “세계시민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생각 또한 여전히 인간 중심 사고이기에 이제는 자연과 우주까지 범위를 넓혀 생각하고 행동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특별대담 ▲하벨 다이얼로그 ▲라운드테이블 ▲시민사회·학생 기념행사 ▲콜로키엄 ▲청년 평화포럼이 있다.

특별대담에는 조인원 경희학원 이사장, 나오미 오레스케스 하버드 대학 교수,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 대 석좌교수가 참석한다. 이들은 2020년 이후 5년 만에 특별대담

로 다시 만난다. 김 원장은 “5년 사이에 일어난 일 중 좋은 일보다 걱정되는 일들이 더 많았다”며 “이번에 세 분이 모여 5년간 일어났던 일과 앞으로 5년 후의 일, 어떻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를 이야기 나눌 것이다”고 설명했다.

하벨 다이얼로그에는 토마시 세들라체크 하벨도서관 신입관장, 마틴 리터 체코고등학술원 철학연구소 부소장, 박영신 전 경희학원 고황석좌 교수, 신진숙 미래문명원 부원장이 ‘시민적 가치와 참여, 하벨 정신의 재조명’에 대해 대화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하벨 다이얼로그는 2015년에 하벨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추서하고 원탁회의를 개최한 후 10년 만

에 하벨을 재조명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라운드테이블은 The Elders, 폴 슈리바스타바 로마클럽 공동회장, 조르지 스자보 전 라즐로 연구소 소장, 토마시 세들라체크 하벨도서관 관장, 요코이 아츠푸미 오카야마 대학교 부총장, 천 즈민 푸단대학교 부총장이 참석해 ‘돌과 혹은 봉과: 행성 의식과 미래 정치의 항배’를 논의한다.

이번 PBF는 지난해보다 학생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학생은 19일 행사에서 자유롭게 질의할 수 있으며 20일에 열리는 콜로키엄에서는 패널로 참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세계평화주간 동안 진행되는 미원평화상 제정 기념 솟품

공모전, 청년 평화 포럼, 지구시민 부스 등의 프로그램에 학생들과 일반시민까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김 원장은 “올해 PBF는 앞으로의 45회, 50회를 바라보며 출발을 되새기는 행사가 될 것이다”며 “내년에 있을 제2회 미원평화상, 세계 시민 포럼(WCF), 세계 시민 청년 포럼(WCYF)의 후속 회의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행사로 올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성세대가 못 풀 문제를 미래 세대가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고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미래세대의 목소리와 힘을 더 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학생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2년간 매달 50만원 기부한 전종득 명예교수

“삶을 풍요롭게 할 감수성 잃지 않길”

최단 기자 dan2530@khu.ac.kr

수학과 전종득(해석학) 명예교수는 1993년부터 지금까지 매달 50만 원을 수학과 장학금으로 기부해 왔다. 30년 넘게 이어진 꾸준한 나눔에는 제자와 후학을 향한 그의 마음이 담겨 있다. 우리신문은 전 교수를 만나 기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그가 후학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봤다.

30년 동안 이어진 기부 “학생한테 조금이라도 보탬됐으면”

전 교수의 기부는 1993년부터 시작됐다. 올해로 32년째다. 매달 50만 원씩 우리학교 수학과 장학금으로 내놓으며 지금까지 30년 넘게 그 약속을 지켜왔다. 전 교수는 이러한 결심의 배경에 자신의 학창 시절을 떠올렸다.

“중학교 때부터 줄곧 장학금을 받아 공부했는데 그게 아니었으면 공부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늘 도움을 받으면서 지내왔으니까, 저도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죠”라고 회상했다.

그 경험은 곧 기부로 이어졌다.



전 교수는 32년째 매달 50만 원을 수학과 장학금으로 기부해 왔다.

(사진=최단 기자)

그는 “매달 50만 원씩 장학금으로 내놓기 시작해서, 적은 돈이지만 꾸준히 하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겠다’ 생각했어”라고 말했다.

전 교수의 나눔은 우리학교에만 머물지 않는다. 매달 유니세프에 5만 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3만 원을 정기 후원하며 국내외 아동들을 돕는 데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전 교수는 종신 기부를 약속해 앞으로도 장학금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아들 또한 우리학교로의 기부를 이어가겠다는 약속을 더하며 나눔을 한 세대 넘게 잇고 있다. 전 교수와 사모님은 우리학교 의과대학병원에 시신 기증을 서약해 마지막까지 학교와 사회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했다.

묵묵히 지켜본 제자들의 발자취

전 교수는 기부의 보람을 학생들과의 소소한 연결에서 찾는다. “가끔 졸업한 학생들이 내 연락처를 알아내 전화를 걸어오곤 하고, 또 장학금 수혜 학생 발대식에 초대받기도 해요. 저는 직접 가지는 않지만,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부가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구나’ 느껴요”라며 감회를 전했다. 전 교수의 목소리에는 앞에 나서기보단 묵묵히 뒤에서 지켜보려는 교육자의 태도가 묻어 있었다.

가르쳤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도 있다. 전 교수는 “내가 가르쳤던 제자 중 한 명이 경희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공부한 뒤, 다시 경희대 교수로 돌아왔어요. 제자가 동료로 부임했을 때 그만큼 뿌듯한 순간도 없었죠”라고 회상했다.

후학들에게 전하는 낭만 “여유와 낭만을 잃지 않길”

후학들에게 전 교수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덕목은 ‘성실’이다. “성실히 살면 기회가 옵니다. 저도 덕성여고 교사로 시작했을 때는 교수가 될 줄 몰랐습니다”라고 전했다.

학문적 성취뿐 아니라 삶의 태도에 대해서도 조언을 건넸다. “낭만 있게 살아라”는 말속에는 평생 간직해 온 철학이 담겨 있다. 여전히 문학 전집을 즐겨 읽는 전 교수는 “수학을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이과적 사고에 머문 게 아니라, 문학 같은 학문에도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에게 성실과 낭만은 결국 같은 맥락이었다. 흔들림 없이 학문을 이어가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감수성을 잃지 않는 것. 전 교수는 “후학들이 성실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면서도 여유와 낭만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